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자)사순 제4주일

2023년 3월 19일 (제2024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신심 단체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화답송 시편 23(22),1-3,7,3,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5,8-14

복음환호성 요한 8,12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요한 4,5-42 (또는 4,5-15,19,20-26,39,40-42)

영성체송 요한 4,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성가]	8시	입당 125	봉헌 214	성체 179	파견 489		
	11시	입당 489	봉헌 215	성체 197, 159	파견 123		
사순 제4주일	3월 19일(주일)		3월 21일(화)	3월 22일(수)	3월 23일(목)	3월 24일(금)	3월 25일(토)
미사해설	이명국 바오로	채성일 토마스	이은자 마트로나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북가주성령기도회
독서	정기환 레안델	최대연 다니엘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지자 요안나	이명련 아네스	북가주성령기도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장희숙 루시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세실리아

■ 3월 19일(일) 해외원조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입니다.
- **십자가의 길** : 매주 목요일, 미사 전 저녁 7시
 주일 7 : 30~ / 10 : 30~
- 사순시기 동안 잠언서를 필사하고,
- 필사하신 분은 성목요일에 봉헌해주세요

■ 사순특별강론

- 일시: 3월 26일(일) 교중미사
- 주제: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기
- 몬트레이 성당 이종욱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님

■ 외부 신부님 부활판공성사

- 몬트레이 성당 이종욱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님
- 일시 : 3월 25일(토) 오전 10:30
 3월 26일(일) 오전 10:30
- **매 미사 30분 전**에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 성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도서 성물 사순시기 할인판매

■ 향심기도 입문 강의

- 일시: 4월 16(일), 1시- 4시
- 강사: 이청준 신부님(향심기도한국관상지원단 지도신부님)

■ 꽃봉헌 신청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Rice Bowl

- 사순시기 동안 특별 모금인 Rice Bowl 기부금은 전 세계적으로 & 지역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 부활절에 봉헌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요셉 대축일 이동

- 3월 19일(일) 성요셉 대축일을 주일 관계로 **3월 21일(화)** 저녁 7:30 미사로 이동해서 축일미사를 봉헌합니다.

■ 복가주성령기도회 찬미 미사

- 3월 25일(토), 오전 11시

■ 성경 통독

- 3월 집회서 (읽기 분량 : 집회서 27,30 - 30,25)

■ 회의 및 모임

- 선종봉사회: 3월 20일(화), 미사 후, 친교실

■ 구역모임

- 오클랜드 : 3/19(일)오후1시 교육관 106호
- 프리몬트 : 3/19(일)오후1시 교육관 107호
- 콘트라코스트 : 3/19(일)오후1시 교육관 201호
- 캐스트로밸리 : 3/19(일)오후1시 대건관 소망방
- 리치몬드 : 3/19(일)오후1시 대건관 제2회의실
- 알 바 니 : 3/19(일)오후1시 친교실 무대앞
- 유 니 온 : 3/23(목)오후5시30분 임베드로/안젤라덕
- 알라메다: 3/19(일) 오후 5시30분 BB Bowl

■ 밥나눔 안내

- 메뉴 : 소고기 미역국, 오므라이스, 떡 만둣국, 새우볶음밥, 묵밥, 우거지 멸치된장국, 칠리덕, 붕어빵, 찹쌀경단, 맛살전, 매생이전
- 문 의 : 밥나눔봉사회 회장 송성숙아네스자매님
(오일공-삼칠오-오일사칠)

■ 성경 전체 필사 노트 전시

- 주정희 마리아 자매님이 성경 전체 필사를 하셔서 제단 앞에 봉헌 전시해놓았습니다.
- 다음 성경 전체 필사 노트를 봉헌하실 때까지 전시합니다.
- 성경 전체 필사 노트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주세요.

■ 공동체 기도 지향

- 송성관 토마스, 한서연 수산나, 송인환 토마스, 박영자 마리아, 신선아 헬레나, 심연자 데레사,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올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하준 분도,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김관숙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육승주 아오스딩, 권주선 다니엘

■ 연도 안내

- 오늘 교중미사 후에 3월 11일(토)에 선종하신 고 부흥신마티아 (향년 88세)형제님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본당 청소 (매주 토 11시30분)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도서관 운영 재개

- 운영시간: 토 12:00~1:00, 일 12:30~1:30
- 문의: 도서관 운영 담당 김세록 제랄드
(오일공-이구이-오파팔일)

■ 본당 한인유니언신협

- 본당에 파견된 한인유니언신협은 3월말까지만 운영됩니다.
- 계좌 등 관련 문의: 213-215-6036/ 213-368-9000

■ 세크라멘토 성당 리노공소 건립을 위한 물품 판매

- 된장/고추장/참기름/고춧가루/도토리가루 등

■ 1월 수입지출 내역 게시

- 친교실 게시판에 내역을 게시하였습니다.

■ 3월 26일(주일) 교중 미사 후에 헤어컷 봉사가 있습니다

■ 요셉상 앞에 사순/부활시기 조형물을 눈으로만 보고 묵상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 지난주에 밥나눔 봉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조형물을 멋지게 구상해주신 크리스티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 지난 한 주간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요셉(3/19): 이병열, 조승구, 이범준, 한치용, 이경섭, 최요셉
- 요셉피나(3/19): 이화영, 황민재,부건화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신앙의 진리와 봉사자의 자세(5)

6.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계속)

봉사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왜 사랑의 문을 닫으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가 준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준 사랑이 무(無)로 끝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라. 개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개는 인간보다 IQ가 낮다. 인간보다 IQ가 낮은 개도 주인이 잘해 주었는지, 잘못해 주었는지를 안다.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안다. 개도 안다면 인간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개보다도 IQ가 낮은 사람이다. 개도 안다면 인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반드시 알고 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좀 더 항구하게 하기를 바랄 뿐이지 반드시 알고 있다. 이 점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영혼은 하느님에 의해서 채워진다. 인간이 빵과 사랑에 의해 채워졌다 하더라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고독을 느끼고 무의미를 느끼고 권태를 느끼는 존재이다. 사랑의 무한이신 하느님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고 방황하는 존재이다. 영혼을 지닌 인간은 하느님을 만날 일이다. 하느님을 만날 때 인간의 물음도 끝이 나고, 인간의 방황도 끝이 나고, 인간의 갈망도 끝이 난다. 깊은 고독과 우울 속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을 만날 일이다.

50대 가정주부의 이야기이다. "성실하고 신의 있는 남편을 만나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나에게 헌신적입니다. 자녀들도 잘 커서 이제는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갔고 이제 집에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저는 요즘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력함과 무의미를 너무나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려보고, 여행도 하면서 기분전환을 해도 늘 마음속에 우울함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깊은 우울과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인생 안에서 깊은 우울과 슬픔을 느낄 때, 그 우울과 슬픔은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듣기를 바란다. 인생 안에서 깊은 고독을 느낄 때, 그 고독은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인간은 빵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졌다 하더라도 하느님에 의해 채워지지 않으면 깊은 고독과 우울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에 하느님을 만날 때, 모든 물음과 방황이 끝이 나고, 인간 존재가 새롭게 변형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좋은 물, 좋은 먹을거리도 주어야 하지만, 나의 미소, 나의 친절, 나의 사랑을 주어야 하지만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것, 하느님을 믿게 해주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인간이 하느님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가톨릭 봉사자들은 강요가 아니라 깊은 믿음과 깊은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전해주시기 바란다. 그 환자가 하느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 육체는 빵을 통해서 채워지고, 마음은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고, 영혼은 하느님에 의해서 채워진다.

7. 봉사자의 자세

이와 같이 인간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봉사를 더욱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봉사자의 육체가 튼튼해야 한다.** 좋은 물, 좋은 먹거리를 많이 잡수시기 바란다. 좋은 물, 좋은 먹을거리를 먹은 만큼 움직이고 일하고 봉사하시기 바란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인생을 가장 잘사는 길이다.

두 번째로 봉사자는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 마음 안에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성격의 모남, 주파수 안 맞는 것, 단점까지도 내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감싸주는 인간의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바로 자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가 6,36) 자비로운 인간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신앙인이 되어야 할 목표이다. 이것이 인간의 완성이고 구원받은 상태이다. (계속됩니다.)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1명	178명	219명

사순제2주일		2차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 시오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김영희(3-4), 이정숙(3-4), 김옥준(1-2), 강수영(3), 김영길(3), 최윤기(3), 이영길(2), 권재복(1-3), 채성일(3-4), 한치용(1-3), 정일양(1-3), 양일규(1-2)					최윤기	홍승천 육승주	최윤기		

+ 미사지향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3/19(일)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3/19(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NORM BARNES	익명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 /아네스		생	주임신부님	김마리안나(정임)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육아오스딩(승주)	육아가다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생	이에스터(선미)	김엘리사벳(영희)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생	권다니엘(주선)	임비비안나(유지)
	연	이야고보(원진)	가족		생	신영철요셉	신빈첸시오
	연	박아브라함(인준)	박로사가족		생	박영자글라라	신울리에따
	연	김시몬(형준)	김클라라(영미)		생	김경승	신빈첸시오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연	민클라라(정희)	민제노베파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3/21(화)	연	최젼마(정자)	이안토니오(동재)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이야고보(원진)	가족
	연	김마르코	가족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가족		생	육아오스딩(승주)	육아가다
	연	육요한(제병)	민제노베파				
	연	김아가다(옥희)	박세레나	3/22(수)	연	윤바로(천호)	윤세레나
	연	최요셉(순일)	김안젤라(영선)		연	최베드로(재원)	최젼마(명주)
	연	최요셉(순일)	가족		연	최빈첸시오(상화)	최젼마(명주)
	연	최요셉(순일)	송아네스		연	임무생(요셉)	최젼마(명주)
	연	최요셉(순일)	정글라라(영희)				
	연	김아가다(옥희)	박세레나, 양엘리사벳		생	육아오스딩(승주)	육아가다
	연	김아가다(옥희)	박글라라		생	육아오스딩(승주)	유베로니카(낙양)
	연	김수산나	정데레사(혜경)		생	박데레사(영자)	김젼마(영순)
	연	부마티아(홍신)	조모나셀라		생	김경승	김젼마(영순)
	연	부마티아(홍신)	양엘리사벳	3/23(목)	연	장바로(대식)	장루시아
	연	부마티아(홍신)	김엘리사벳				
	연	부마티아(홍신)	임비비안나(유지)		생	육아오스딩(승주)	육아가다
	연	부마티아(홍신)	김젼마(영순)				
	연	오연식, 오마리아	양엘리사벳	3/24(금)	연	최요셉(순일)	박헬레나
	연	이세림	이요셉				
	연	이효동	이베로니카		생	육아오스딩(승주)	육아가다
				3/25(토)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이야고보(원진)	가족
					생	김골롬바	송아네스
					생	육아오스딩(승주)	육아가다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 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 요 한</p>	<p>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p>
--	---	--	--	--